

이코노&비즈 피플

이명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고용창출 기여하는 中企 발굴해 집중 지원”

“연구역량 확충은 물론 지자체나 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만난 이명종(53) 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선 “국내 경기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자금 3581억원을 1%의 저리로 운용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4546개 업체가 이 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발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산업 비중, 자금수요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역 전략산업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자

상반기 4546개 업체에 3581억원 1% 저리 융자 지역경제발전 정책대안 제시

금(C2)의 지원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고, 토마토와 참다래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역 내 총생산도 2008년 이후 연평균 6.0% 이상 증가해 전국 평균(5.3%)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다만 지역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소득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기업정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이 지역성장을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성장가능성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부품소재산업 등의 신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의



지속적으로 확대·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현황, 환율과 수출 간의 관계 분석, 저출산·고령화 문제, 광주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방향 등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조사연구 수요에 부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사연구협의회’가 지난 4월에

구성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 지역현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도 갖추고 있다. 화폐 교환이나 외국환 신고를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하는 지역민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보다 깨끗한 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경제교육 및 경제캠프, 대학생 대상 중앙은행론 강좌 및 통화정책 경시대회, 중등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 소외계층 방문견학 행사 등 다양한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국민 경제정보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본부장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민과 지역금융기관에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이 본부장은 대전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금융시장국 차장, 국제국 팀장, 공보실장, 인사경영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97년에는 미국 오리건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뜰폰을 잡아라”

이통 3사 오늘부터 사업 개시

‘반값 요금제’ 등 시장 선점 경쟁

KT와 LG유플러스가 알뜰폰(MVNO)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미디어로고는 ‘유모비’(U-mobi)라는 브랜드로 9일부터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미디어로고는 알뜰폰 고객 중에서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톱티에블루션(LTE) 고객을 주요 타겟층으로 잡았다. 모기업인 LG유플러스가 LTE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심본 활용한 것이다. 미디어로고는 이를 위해 14종의 요금제 중 13종을 LTE에 특화된 요금제로 구성했다.

단말기는 LG유플러스가 LG뷰2, 갤럭시S, 베가남버6 등 보급형 스마트폰 4종과 LG와인4, 삼성마스터 등의 피쳐폰 2종 등 총 6종을 확보했으며, LTE폰을 주력으로 단말 라인업을 이룬 시일 내 확대할 방침이다.

KT 계열사인 케이티스(KTIS)도 9일부터 ‘M모바일’ 브랜드로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다. M모바일은 기존 이통사 요금제 대비 최대 55% 저렴한 ‘반값요금제’를 마케팅 전략으로 앞세웠다. 특히 ‘반값 망내 무제한 요금제’는 KT와 KT계열 알뜰폰 고객 모두와 무제한 음성통화 및 데이터 사용 패턴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 3종도 선보인다. 알뜰폰 선불 요금제 이용자 중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 최저요금으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추가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KT가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이통 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 3사의 경쟁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어닝쇼크’

2분기 영업이익 7조2천억원...전년비 24.5% ↓ 스마트폰 판매 감소 직격탄...하반기 회복 기대

삼성전자가 한때 9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2분기 영업이익이 7조2천억에 머물러 관련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2분기 실적 예상치 크게 밑돌아= 8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분기 실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7조2000억원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26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는 8조714억원이었는데, 이보다 10.8% 낮았다.

예상 범위는 7조5610억원~8조29260억원이었는데 하한선마저 크게 이탈했다.

증권가의 영업이익 평균 예상치는 3개월 전 9조2000억원에서 1개월 전 9조원으로 수정됐다. 최근 8조원으로 낮아진 상태였다.

2분기 매출액은 52조원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인 53조원을 1.9% 밑돌았다. 영

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5.2%,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24.5% 감소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1%,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9.5% 줄었다. 계절적 영향으로 분기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경우는 종종 있지만 1년 전보다 후퇴한 것은 2005년 2분기 이후 9년 만이다.

◇스마트폰 판매감소 직격탄, 반도체·가전 등 선방=이 같은 실적 부진은 휴대전화 사업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가 속한 IT·모바일(IM)의 실적 후퇴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분기 8000만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는 8900만대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저가폰 비중이 커진 가운데 후발주자인 화웨이나 레노보 등 중국 업체들이 세계 최대 모바일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물론 북미, 유럽에서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

로 분석된다. 지난 4월 출시한 갤럭시S5를 비롯한 프리미엄 제품 판매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전작에 못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부문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제품의 건조한 가격 흐름이 이어지면서 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TV 등 가전 부문도 비수기를 벗어난 데다 월드컵 등에 힘입어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사업 부진으로 외형 축소와 함께 수익성 약화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율도 부정적 영향, 하반기 회복 기대=2분기 실적 약화에는 환율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와 유로화면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에 대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실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생활게시판' (Life Noticeboard)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청다룩다슬기전문점', '필인쇄디자인', '국제사', '동양철학원', '다나베음므', '하심사', '토산철학원', '두걸음직업소개소', '낙지한마당', '올리브반찬도시락', '광남기업', '똥이레', '골든보석', '등촌', '김용만국수집', '뚝임이아구찜', '광주화랑', '우먼로드', '고전방', '우리밀빵', '이가회관', and 'TV스토리'.